

순수회화와 키치의 비교

윤 애 근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 예술대학장



오늘날의 문화 현상을 다중문화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현대문화는 이 다양화된 환경에서 점점 상품화되어 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술가들이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자기만의 성을 지어 그 영역에서만 살아가야 하는 강인함을 지녀야만 가능할 것 같다.

예술이란 풍부한 상상력과 체험, 기타 등등의 리얼리티를 감각화시켜 보여줌으로써 그 결정체를 통하여 보는 이에게 공감대 혹은 감동을 주는 것이라면, 처음엔 아주 사소하고 주관적이었던 것이 서서히 객관화됨으로써 인간의 정신세계를 보다 풍요롭고 새롭게 열어가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다.

예술을 학문으로 다루는 대학교수들은 어떤 예술교육론을 펼 것인가 하는 문제에 부딪칠 것이다. 현대미술, 특히 포스트모던한

문화 상황에서의 메커니즘은 순수한 미술품을 상품화시키는 어찌할 수 없는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예술가의 정신세계까지 상품화된다면 그것은, 예술가들에게 종말을 고하는 것이 되고야 말 것이고 예술교육의 역할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래서 대학의 예술교육은 많은 예술가 지망 학생들에게 순수한 정신을 지키며 자신의 독창성을 발휘하여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의 차이점을 구분하게 하기 이전에 예술과 비예술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 주는 안목을 높여 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학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서양 현대미술에 등장한 키치와 한국 미술에 나타나는 키치로 나누어 그 문제점을 논하여 보는 것이 이 두 영역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다.

일반 대중에게 키치(Kitsch)라는 말이 아직은 생소하게 들릴 만큼 미술에 사용된 것은 그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 키치란 19세기 말엽에 사용하기 시작한 말로써 '저속한 작품', '사이비 예술'이라는 뜻을 지니며, 쉽게 표현하면 이발소 그림이라는 격하된 예술로 조야한 미술품들을 말한다. 1860~1870년대 사이에 독일 뮌헨의 화가와 화상들 사이에 쓰이던 속어였으며, 1910년대에 이르러서야 국제적인 용어가 되었다. 여행자들이 싸구려 그림을 기념으로 사기 위하여 영어의 Sketch라는 말을 잘못 발음해서 유래된 것이라는 일설도 있고, 독일의 '값싸게 만들다'라는 방언인 Verkitchen이라는 단어에서 그 기원을 찾기도 한다. 이렇게 키치의 어원이 불명확하듯 그 쓰임새 역시 광범위하고 주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전위(아방가르드 : Avant-Garde)가 있는 곳에서 대개 우리는 후위(Rear-Garde) 또한 발견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루드비히 기르네 『키치의 현상학』에서 '거리의 쓰레기를 수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독일어 명사 Kischen에 키치를 연결하여 그 어원에 대하여 가정하기도 하였다. 진실로 아방가르드의 시작과 함께 그와 반대되는 새로운 문화적 현상이 서구 산업사회에 나타났고 독일인들은 이것에 '키치'라는 이름을 붙였다. 키치란 "간접경험이며 모방적인 감각이다. 키치는 유행에 따라 변하지만 그 본질

은 항상 같으며 시대의 삶에 등장하는 모든 가짜에 대한 집약이다."고 정의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키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언급하는 것은 경솔한 것이며 그 어원에서도 살폈듯이 쓰임새가 광범위하다는 것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기 쉽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직관적인 정의를 내리게 된다. 특히 요즈음같이 상업미술인 일러스트레이션과 순수미술의 구분이 모호해진 포스트모더니즘 상황에서는 더욱 난해한 문제로 남아있다.

서양미술에 등장한 키치

서구의 인상주의가 획득한 미술의 근대성, 순수성과 자율성은 주관적인 미학의 바탕 아래 다양한 이즘으로 첨예화되어 왔다. 그래서 귀부인보다 소박한 서민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와서는 화가들은 더욱 대중에게 눈을 돌리고 팝 아트를 탄생하게 만들었다. 그토록 통속적이라고 치부하였던 대중적인 이미지들을 화면에 등장시킴으로써 키치는 서서히 순수미술에 등장하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전위의 반대 개념에 속하는 키치적인 것이 가장 전위적이고 새로운 미술품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팝 아트의 대가 앤디 워홀은 순수예술과 일러스트레이션의 구분을 없애고 대중적 이미지들의 반복으로 캠프(Camp) 예술의 선구자가 되었다. 대량생산과 소비사회를 찬양하여 실크스크린으로 복제된 먼로의 반복적인 배치라든지 코카콜라라는 가

장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는 상품을 작품에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그의 생각 - 대중 소비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 을 적극적으로 이미지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대중에게 낯설지 않고 진부하며 익숙한 키치성은 포스트 모던이라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 범람하게 될 가능성을 지니게 된 것이다. 그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저변에 깔린 문화의 높이대와 같은 속성 때문이다.

다원주의는 나름대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개인에게 뚜렷한 기준이 없이는 모든 상황이 예술로 허용되는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리고 많은 석학들이 주장하듯이 미래의 사회는 이성주의에서 감성주의로, 이데올로기에서 탈이데올로기로, 집단에서 개인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행을 실제 상황보다 이미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오늘날의 시각예술의 현상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키치의 속성인 상투성과 예술의 본질인 독창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에 끊임없이 도전하는 순수예술의 대립은 필연적인 과제로 남게 될 것이다. 좋은 그림을 보는 날카로운 눈을 지닌 대중과 화가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오늘날도 복고주의적인 취향으로 과거의 기억들을 재고하는 방식의 작업을 하는 화가들이 많다. 그러면 이들의 작품에 나타나는 양식의 패러디 같은 것은 키치와 어떻게 구분할까? 이들은 시대적 이미지를 차용한

것이고, 키치 화가들은 순수미술을 흉내내어 정신적이고 창조적인 고뇌없이 소비자에게 단지 구입을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다.

미술대학의 교육에서 예술과 비예술의 차이점을 짚 수 있는 눈높이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따라서 전통과 독창성이 가미된 좋은 예술작품을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주는 데 대학 예술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

한국미술에 나타나는 키치

키치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쓰일 정도로 그 역사는 짧지만, 현대는 문화적 욕구가 강한 시기이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70, 80년대의 부동산 투기로 졸부들을 만들어낸 경제상황은 더욱 더 키치를 부추기게 되었고, 많은 수요층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들의 허영심을 만족시킬 키치 예술의 공급이 필수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게 된다.

K. 해리스가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에서 현대미술이 키치의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고 지적한 바 있듯이, 상투적인 추상화가 현대의 부유층 취미에 맞게 꾸며진다면 벽에 걸린 장식물에 불과하고 키치로 전락하고야 만다고 추상미술의 키치성을 염려한 바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범람하는 강남의 상업 화랑들은 우리 문화의 빠른 진보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키치들이

삼각지 화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케 할 만큼 키치예술을 취급하는 화랑들이 급속히 불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삼각지의 화랑들은 미군들을 대상으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초상화가들을 상대로 미술 재료와 액자 등을 팔면서 조야한 장식적인 그림들을 걸어 놓고 판매하는 싸구려 화랑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대량생산을 위하여 키치 화가들과 연결되어 이익을 나누어 가지며 암암리에 가짜 그림(모작)을 제작하기도 한다. 70, 80년대에 일본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우리의 고미술품인 민화의 수요가 급증하자, 인위적인 가짜 민화를 만들기 위해 커피나 담배진을 주사기로 삽입하여 곱팡이로 누런 얼룩의 흔적을 가한 모작 고미술품들이 식별의 눈이 어두운 일반인들에게 팔려 나간 적이 많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현대미술은 그 역사도 짧을 뿐더러 성급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므로 서구의 형식을 무비판적이고 반성없이 받아들인 점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좀 더 한국적이고 독창적인 우리의 예술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현대미술에서 대중성의 문제는 대중을 무시한 채 “문화가 존재 가능한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특히 순수예술이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상황 속에서 가능한가라는 회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순수지향의 화가들은 존재의 위기를 당면한 문제로 의식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화

구조 속에서 또 다른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찾아 도구의 전환 등 다양한 시도를 모색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순수 예술가들의 노력은 그 동안의 매체를 전환시켜 새로운 조형어법의 다양한 실험으로 나타났다. “회화는 죽었다.”라고 시대적 상황을 말하는 미술 비평가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이 아무리 물질 문명화되고 기계화되어 간다고 할지라도 철학이 확고한 학문의 영역을 지키고 있듯이 순수회화 역시 확고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정신적 측면이 강한 철학과 회화는 우리 삶에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 되기 때문이다. 현대미술이 대중과 연결되면서 우리는 종종 현대미술 속에서 저렴한 키치와 같은 느낌을 전달받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미술이 대중의 취향에 발맞추어 요구에만 부응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현대미술에서 이것이 키치나 아니면 예술이냐라며 작품 앞에서 외설 시비까지 불러 일으키는 상황으로 번져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는 작품들도 있다. 제프쿤스와 같은 작가는 적나라한 정사 장면을 사진보다 리얼하게 제작하여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가끔씩 싸구려 액자에 플라스틱 인형과 같은 키치 감각의 작업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천박한 키치의 이미지를 예술작품 속에 삽입함으로써 대중에게 충격적인 효과를 얻기도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중에게 충격을 주고 파고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는 그에게는 문

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충격요법을 가깝
전위 예술가들은 시도하고 이용하고 있다.

마르셀 뒤샹이라는 작가는 1917년 뉴욕
의 앙데팡당전에 남자 소변기를 '샘'이라는
제목으로 출품하였다. 당시 물의를 일으켰
던 이 사건은 그 후 많은 젊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새로운 '레디 메이드'(기성
품이라는 뜻)라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는
키치성을 순수예술 작품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키치성을 의식적으로 도입한 현
대미술 작품과 키치를 구분해서 보아야 하
는 당면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 이유는
위에서 예를 들었듯이 현대미술 속에서 나
타나는 키치성과 키치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마르셀 뒤샹이 하였던
작업을 상업 화랑의 요구에 의하여 누군가
가 모작으로 제작 판매하게 된다면 그것은
키치가 되지만, 키치적인 감각을 자신의 창
의적인 작품 속에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키
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독창성에다 키치의
기술적 요소를 가미한 하나의 창의적인 작
가 정신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현
대 미술과 키치 이 두 종류의 예술은 분명
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순수예술
작품과 비예술 작품의 구분이 결정되는 것
이다.

예술이 지닌 순수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

까? 이것은 화가의 인생관을 비롯하여 작업
에 이르기까지를 총망라하는 전 영역에서
진실이라는 문제와 결합되어 있다.

우리는 현대를 정신적인 위기의 시대라고
말한다. 어떤 이는 과학이, 어떤 이는 종교
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는 믿음을 갖
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첨단과학인 컴퓨
터가 인간의 두뇌를 대신해 줄 시대가 온다
해도 인간은 더욱 더 철학과 예술에 목말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좋은 그림을 보
는 눈은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기에 키치라는 통속 미술을 여기에 잠
시 소개하게 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예술이 살아있는 사회는 그
시기가 물질적인 궁핍 속에서도 가장 인간
적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기
때문이다. ■

윤애근/중앙대 미술과와 상명여대 미술과, 홍익
대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현재 전남대 미술학
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예술대학장을 맡고 있다. 국
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와 광주직할시 미술대전, 전
남 미술대전, 한국화대전의 심사위원 및 초대작가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색채학개론』, 『교양미술신
강』, 『미술의 이해』 등이 있고, "송·원대 산수화의
변천", "동양화 자료의 품질 연구" 외 다수의 논문
을 발표했다.